

# 화학기업 에너지 절감 잠재성 높다!

에너지 사용량 42만9013TOE 절감 가능 ... 온실가스 108만6377CO<sub>2</sub> 감축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들의 에너지 소모량을 4%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를 넘는 383개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7년 실시된 에너지 진단 결과 사업장이 사용하는 937만3271TOE의 에너지 가운데 4.6%인 42만9013TOE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8만6377CO<sub>2</sub>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필요한 투자액은 3268억원이었으나 계획대로 시설이 설치되면 1698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1.9년이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업종이 전체 에너지 절감 잠재량의 34%에 해당하는 14만6498TOE를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사용량 대비 절감 잠재 가능비율은 식품업종이 1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분야별로는 폐열회수 부분에서 전체 절감 잠재량의 32.9%인 14만1038TOE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진단은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이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에너지 이용실태를 분석해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방안을 제시하는 기술 컨설팅으로,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국 2500여개 사업장은 5년마다 진단을 받도록 2007년부터 제도화했다.

하지만, 절감 가능한 것으로 진단된 부분을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단 관계자는 “기업들이 에너지진단 결과에 투자해 실질적인 에너지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온실가스 감축등록사업 지원, 진단 후 기술지도, 성과 점검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31>